“대원들 모두 함께 낭가파르밧 정상에 서고 싶다”

히말라야 14좌 완등 마지막 고지 도전 광주·전남학산 출신 김미곤 대장

등반 과정 동료들 잃은 것 큰 아픔이지만 재도전 용기도 얻어
지역 산악인 경제적 어려움, 끈끈한 정으로 이끌며 극복할 것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 중인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출신 김미곤(44·한국도로공사산악팀·서영대OB) 대장이 마지막 고지를 향해 22일 파키스탄으로 출국한다.

마지막 낭가파르밧(8125m) 등정에 성공하면 김 대장은 14좌 완등에 성공한 국내 6번째 산악인이 된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출신으로는 첫 ‘산악 그랜드슬래머’ 탄생이다. 의미가 남다르지만 그는 의외로 담담했다.

다만, 한가지 욕심은 내비쳤다. ‘2016 낭가파르밧 아시아 평화원정대’ 대원 모두와 정상에 서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함께 고생한 대원들과 영광의 순간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이번에는 대원들 위주의 등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14좌 완등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을 묻는 질문에 ‘아픔’이라고 답했다. 지금껏 정상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14좌 완등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2010 히말라야 원정대’ 마나슬루(8163m) 등정 당시 정상을 눈앞에 둔 7400m 지점에서 기상 악화로 하산을 결정했는데, 쏟아지는 눈보라에 두 명의 동료를 잃었다.

“박행수, 윤치원, 두 대원은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수많은 정상을 올랐지만 제가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욕심은 곧 죽음으로 직결된다. ‘조금만 더 오르면 정상’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정상 공격에 나서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동료를 잃은 ‘아픔’이 김 대장에게 과감히 포기하고 뒤돌아 내려올 수 있는 큰 ‘용기’를 줬다는 것이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출신인 그는 지역 선배들에게 꼭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아무래도 지역 선배들은 고생하면서도 원정등반은 쉽게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선배들이 길을 닦아 놓지 않았다면 제 도전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편하게 등정에 나설 수 있도록 고생한 선배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특히, 호남지역은 산악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고향 산악인들에 대한 자부심 만큼은 남다르다.

김 대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해외원정을 떠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한테는 ‘뜨끈뜨끈’ 한 정이 있다”며 “이 정으로 국내든, 국외든 서로를 이끌어주며 많은 산행을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등정을 마친 후 청소년들을 위한 ‘등산학교’와 ‘캠핑’ 체험행사를 진행할 생각이다. 소년소녀가장의 ‘아빠’ 역할을 맡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다.

“유럽 산악인들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반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는 아직 아시아 산악인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남아 있어요. 후배들이 해외원정 등반에 나가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고 싶네요.”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조치훈 9단, 日 최고 권위 ‘명예명인’

조치훈 9단이 일본 바둑계 최고 권위의 칭호 중 하나인 ‘명예명인’에 등극했다.

20일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조 9단은 규정에 따라 만 60세 생일을 맞이한 이날 명예명인이 됐다.

명인을 포함한 일본 바둑계 7대 타이틀의 경우 5연패하거나 통산 10회 우승한 사람에게 60세가 됐을 때 또는 은퇴시에 ‘명예’ 칭호를 수여한다.

조 9단은 1980년 제4기 명인에 오른 이후 1984년까지 5연패를 달성하며 20대때 일찌감치 명예 명인 자격을 손에 넣었다. 일본에서 명예명인 등극은 조 9단이 2번째다. 명예명인 1호는 고바야시 고이치(63) 9단이다.

부산에서 태어난 조 9단은 6세때 일본으로 건너가 11살때 일본기원 소속 프로기사가 된 이후 통산 타이틀 획득 수에서 사상 최다인 74회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바둑 7대 타이틀을 모두 한차례 이상 획득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사상 처음으로 달성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준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취임

김준(57)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이 20일 취임했다. 광주 출신인 김 신임 지사장은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85년 공사에 입사, 서울지역본부 운영계획팀장, 제주지역본부 운영단장 등을 거쳤다. 김 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철도망 등 육상교통 체계 변화로 호남권 항공 수송 수요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항공사간 협력을 강화해 광주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최성종 지사장은 본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봉사단 농가일손돕기

전남개발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눔이봉사단 30여명은 최근 나주시 동강면 농가를 방문해 복분자 수확 등 일손돕기 봉사를 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세계적 피아니스트 번스타인 6·25 참전용사 자격 방한

세계적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89·사진)씨가 6·25전쟁 참전용사 자격으로 방한한다.

번스타인 씨는 6·25 전쟁 당시 최전선에서 100여 차례 위문 공연을 했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번스타인씨를 비롯한 미국인 6·25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해외교포 참전용사 등 70여 명을 23~28일 5박 6일 일정으로 초청,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번스타인씨는 24일 열리는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를 위한 위로연과 27일 감사 만찬 행사에서 함께 방한한 전우들을 위해 66년 전 전쟁터에서 들려줬던 피아노 선율을 다시 연주할 계획이다.

번스타인 씨는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소네트’의 주인공으로, 1951년 4월부터 1년 6개월간 미 8군 일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최전방에서 100여 차례 피아노 공연을 하며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던 군인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번스타인 씨는 “최전방에서 개최된 공연들은 언덕 밑에 피아노를 배치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군인들은 언덕 경사에 앉았고 포탄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공군들이 언덕 위를 비행하며 우리를 지켜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연합뉴스

백화포럼, 정당 공천 문제점·해결방안 토론회

백화포럼(공동대표 양혜령·이상소·현정호·문병옥·박관수)이 주최한 ‘20대 총선 및 동구청장 재선거 정당공천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최근 광주시 동구 마사회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양혜령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여전히 정당들의 공천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공직후보선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당들의 조기공천, 전략공천의 자제, 비례공천방식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초당조직의 강화를 통한 민주적 경선의 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13총선에서 더민주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병훈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장은 “지역여론에 따라 퇴출돼야 할 인물들이 당을 바꾸거나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다면 아무리 공천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해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컷오프 대상자나 선거 전 일정기간 당적을 변경하는 자는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관수 백화포럼 공동대표는 “평소 지역주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 온 지역 정치인들이 갈수록 설자리가 없어지는 정당 공천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웅기자 pboxer@

박태명 전 PD 다큐멘터리 제작기 출간

지난해 12월 kbc광주방송국 편성제작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박태명 PD가 ‘세상, 약간 삐딱하게 보기’(심미안)를 발간했다. 책은 젊은 날 방송국에 입사하여 PD로 30여 년을 땀흘려온 저자의 생생한 다큐멘터리 제작 체험기다.

저자는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연출했는데, 특히 애정을 깃들인 분야는 다큐멘터리다. 책에는 그동안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중 14편이 수록돼 있다.

‘내 친구 병규’는 5·18민주화운동에서 죽은 박 PD의 친구 병규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내용이다.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던 친구의 죽음을 통해 시민들이 왜 민주·인권·평화·통일 세상을 꿈꾸다 쓰러졌는지를 조명한다.

박 PD는 “유독 다큐멘터리를 ‘내 속으로 낳은 자식’처럼 애지중지하게 되는 건 제작을 준비하는 호흡이 길고 그만큼 쏟아 붓는 시간도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회원 연수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협회장 이강열) 회원 50명은 최근 국제청소년교육재단 담양군청소년수련원 국제홀에서 2016년도 회원연수를 실시했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제공〉

인사

◆KIA타이거즈
◇승진 ▲이석범 운영팀장
◇전보 ▲노대권 마케팅팀장 ▲장판기 육성지원팀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정효채(삼성애버랜드 퇴직)·양옥련씨 장남 찬희군(삼성전자) 주신호(전 광양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질임씨 차녀 송이양(LG전자)=25일(토) 낮 12시30분 서울 강남 더베일리하우스 단독홀.

종친회

▲하동정씨 장령공파 화목회(회장 정동열) 하계수련회=29일(수) 오전 8시30분 광주역에서 출발, 순천 강천사 순제묘 참배.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미혼양육모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062-222-9349.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디자인 솝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솝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안전모니터봉사단원=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원봉사 남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이대주 님(남/67세)
子/子婦 : 이현수/조경희, 현진
女 : 이희경 未亡人 : 김숙희
• 발 인 : 6월 21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1

301호 故최순임 님(여/81세)
子/子婦 : 박도민, 도현/정희경, 도진/고덕순, 현재/이미영
• 발 인 : 6월 21일
• 장 지 : 화순춘양선영 • 연락처 : 227-4382

402호 故임찬이 님(남/75세)
子/子婦 : 임정진/이춘화, 정수
女/壻 : 임정아/박경태
• 발 인 : 6월 21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3

101호 故최희경 님(여/74세)
女/壻 : 박순정/민영준, 순희/최정규
孫 : 민정식, 정수, 최이주
• 발 인 : 6월 21일
• 장 지 : 장흥 관산선영 • 연락처 : 227-4000

102호 故정형주 님(남/62세)
子 : 정찬호 女/壻 : 정혜영 未亡人 : 이미숙
• 발 인 : 6월 22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 의 (062)227-4000

부음

▲박남규씨 별세 김광제(㈜아이드림 대표)·성제(경기도 의왕시장)씨 모친상 홍흥주(전 통일부 남북회담 사무국장)씨 빙모상=발인 21일(화)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062-231-8901.

▲김창주(3대 전남도의원)씨 별세 종길·종렬·종윤·란희·종선씨 부친상 양규열씨 빙부상=발인 21일(화) 여수시 여천전남병원장례식장 061-691-4444.